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7월 16일

### CUOMO 주지사 뉴욕주의 10대 청소년들을 실내 태닝의 위험에서 보호하는 법령에 서명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10대 청소년들의 실내 태닝 시설 출입을 제한함으로써 UV 방사선 노출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17세 미만 청소년의 실내 태닝 장치 사용이 금지되며, 17세와 18세 사이 연령의 경우 부모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UV 방사선에 대한 노출은 극히 해로울 수 있고 특히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러하므로, 이 새로운 법은 실내 태닝 장치의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증가된 피부암의 위험에서 10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이 법령은 많은 태닝 샬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만, 아동들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Fuschillo 상원의원 및 Weisenberg 하원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중전의 법에 의하면, 14세 미만 청소년의 UV 방사선 장치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14세와 18세 사이 연령의 경우 부모나 보호자의 서명 제시가 요구되었습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법령에 의하면,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UV 실내 태닝 장치의 사용이 금지되며, 17세와 18세 사이 연령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이 법은 30일 후에 발효됩니다.

Charles J. Fuschillo 상원의원은 “연구조사에 의하면 UV 태닝은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며, 피부암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고 피부를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한 UV 방사선에 노출시킵니다. 이 법은 추후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법령에 서명한 Cuomo 주지사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Harvey Weisenberg 하원의원은 “불행히도 어린 나이에 받는 실내 태닝은 추후에 후회를 가져오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암의 예방을 위해 이 중요한 조치를 취한 주지사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